

文 정부 유일 격상 ‘중기부’... “컨트롤타워 역할 아쉬워”

文 정부 중기부 5년 평가 들어보니 ‘中企’보다 ‘벤처’ 정책 우선순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 2배 이상 ↑

문재인 정부가 9일 막을 내리면서 2017년 출범 당시 차관급 부처로 유일하게 격상해 임기를 함께 해온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기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나오며 한 때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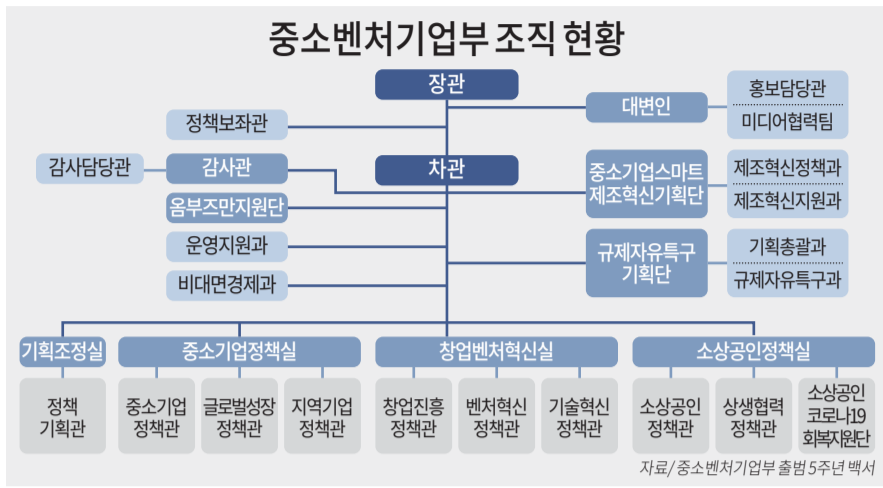
고비를 넘긴 중기부는 일단 새 정부에서도 유지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문 정부와 함께 오롯이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중기부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긍정 시각’보다 ‘부정 시각’이 많은 모습이다.

우선 문 정부에서 중기부는 3명의 정치인 장관이 모두 자리를 채웠다. 1대 홍준하→2대 박영선→3대 권철승 장관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다.

중기부 예산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당시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해 10조785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엔 31조3512억원(1차 추경 포함)까지 늘었다. 4년 사이 191%나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예산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윤 정부의 인수위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간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은 31조6000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 정책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중기부의

존재가치가 얼마나됐을까를 생각해볼게된다”는 말로 중기부에 대한 평가를 일갈했다.

중기부는 올해 초 펴낸 ‘5주년 백서’에서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를 5년의 기록 가운데 가장 앞에 나열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및 피해기업 집중 지원 등으로 나눠 설명하면서다.

문 정부 시절 중기부를 정치인 장관 일색으로 채운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

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처음 만들고, ‘중소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충실했어야 할 중기부를 놓고 정치인 장관들이 ‘자기 정치’만 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늘공(늘공무원)’인 중기부 직원들도 격상된 부처의 역할과 사명에 맞는 패러다임 제시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정치인 장관 모시는데 바빴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중기부가 정책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중소기업들로부터 ‘흑평’을 받은 것은 더욱 뼈아픈 일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중기청으로 한계가 있으니 업계에서 중기부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라며 “그런데 문 정부에서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마다 중기부가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그런 (평가)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또 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소기업보다

벤처기업에 뒤 오려라 ‘벤처중소기업부’가 어울렸던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말도 들린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7년 당시 4조59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9조22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규 벤처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2조4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가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 인력 문제, 혁신과 성장을 막는 규제 문제에만 집중을 해도 중소기업 문제의 8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새 정부가 국정 과제에 ‘공정거래’ 분야를 무척있게 다룬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대·중소기업 사이에선 ‘경쟁’보다는 ‘공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은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투자한 스마트공장의 경우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만 고도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大·中企간 ‘동반성장’ 기여 유공자 포상

중기부, 기업·공공기관 등에 수여 납품단가 조정 모범기업 등 발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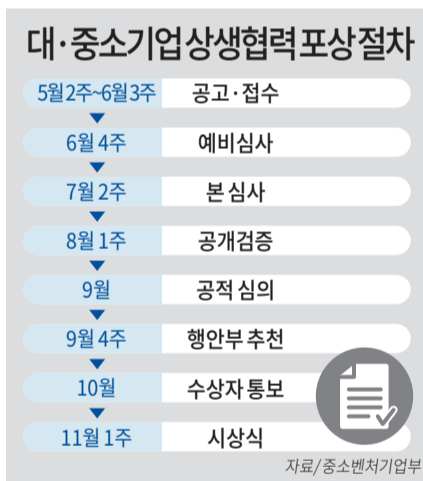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상생으로 동반 성장에 앞장 선 기업을 찾는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유공자 포상 접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포상분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 등으로, 심사를 거쳐 산업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등 총 65점 안팎을 선정해 11월 첫째 주에 열리는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포상 훈격과 규모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한다.

특히 올해에는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납품단가 조정 모범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및 수출 위기를 상생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협력사 위주의 시혜적 상생협력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윈윈(win-win)’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은탄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위아 정재욱 대표는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역물품 제공 등 987개사에 총 1154억원 규모로 지원했다. 또 원자재 연동 등을 반영해 366개 협력사에 2200억원 규모로 납품단가를 인상했다.

동탄산업훈장을 받은 LG전자 이시용 전무는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AI로 일자리 매칭해드려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부터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참! 기업매칭’을 시작한다.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게 찾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참! 기업매칭’은 AI 역량검사에 기반한 맞춤형 매칭시스템이다. 구인기업에게는 직무별 적합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성향별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맞춤형 채용·취업을 지원

한다.

구인기업은 채용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역량검사를 통해 직무적합도와 잠재역량이 뛰어난 맞춤형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구직자는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역량검사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업추천과 AI 면접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며 “이번 참! 기업매칭 서비스로 우수기업과 능력있는 인재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경주시와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안정적인 고용 문화 창출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주시와 ‘경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의 우수 청년인재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고용 문화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ESG경영 확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주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금 중 일부인 월 10만원을 1년 간 지원하는 사업

이다. 가입 자격은 경주시 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5월 초부터 기업당 최대 5명, 총 50명을 모집한다.

경주시 김호진 시장권한대행은 “중진공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일자리 안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안정근 일자리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에 적극 협력해주시는 경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에도 경주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ESG경영이 확산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을 집중 지원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 재직자가 공동으로 적합한 금액에 1000만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장기제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창진원, 창업분야·창업지원분야

창업진흥원이 ‘제3회 창업기반 ESG 실현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

9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창업기업·창업 지원기관의 우수 ESG 실현 사례를 발굴·공유해 창업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업 기반 ESG 실현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창진원은 지난 2020년 ‘제1회 창업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22개 사례를 선발해 창업 기반 사회적가치 창출 문화 확산에 일조했다. 올해 경진대회 주제는 ‘창업 기반 ESG 실현’으로 정했다.



접수는 오는 6월9일까지로 대한민국 종합 창업 포털인 ‘K-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평가를 거쳐 6월23일에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우수사례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창업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창업분야), 창업지원 실무자(창업지원분야)다.

/김승호 기자